

기본급 120,304원 인상!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공직취임 쟁취! 감염병 보호! 노조 및 지부 회의 참여 보장!



지부교섭 속보 09호

2020.07.27(월)

□발행처: 교육선전부 □발행인: 김정태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 043-236-5077 □http://dc.kmwu.kr

[9차 지부교섭_3차 제시안 제출]

결단하게 만들어주겠다!



황당한 제시안

지부교섭이 2주간의 냉각기를 거치고 23일(목) 한온시스템 교육문화관에서 재개됐다. 사측이 제시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 날 제출된 제시안은 지부 교섭위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요구에 대해 ‘추후 제시’, ‘추가 제시 없음’으로 제시하고, 감염병 보호에 대해서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생활안정방안에 대해서는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 중앙교섭 제시안 보다 떨어지는 수준이다.

<3차 제시안>

1. 2020년 임금인상 : 각 지회별 협의 후 추후 제시
2.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 추후 제시
3. 공직취임 : 추가 제시 없음
4.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한정
- 사내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 동일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업체 지도, 감독
- 노동자들 면역력 강화, 감염예방 조치 중 인력충원 방안 없음
- 생활안정방안(격리기간 정상근무 인정 등) 없음

5. 본조 및 지부 주관 회의시 지회, 지부 담당간부 시간

할애 : 기존 합의안 유지 (2008년 지부교섭 합의)

8월 투쟁으로 결단하게 만든다!

사측은 다음주까지도 크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제시안을 만들기 어렵다며 시간을 더 줄 것을 요구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8월 투쟁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경고했다. 사측이 아직도 결단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투쟁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

9차 교섭 속기록

사측 제시안 황당하다!

〈노사 모두발언〉 〈제시안 제출〉 〈정화〉

노 : 지부 및 지회 담당간부 시간할애에 대해서 한은이 못 들어주겠다고 하는 건가?

사 : 전체에 대한 요구안이고 회사들의 공통 입장이다. 특정회사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가?

노 : 그럼 한은은 수용한다는 건가? 전반적으로 안을 받아봤는데 교섭위원들이 황당해한다. 공직취임 추가 제시가 없다고 돼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로 취임하면 시간을 인정하라는 건데 20년 가까이 금속노조 지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못한다는 이유는 뭐가 있나? 여태까지 하던 걸 명문화 하지는 건데.

사 :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벗어나면 법 위반이다.

노 : 타임오프 10년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그건 핑계에 불과한거 아닌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하지는 거다. 지부 후보를 못내서 한달 넘게 공백이 있었다. 몇 달간 지부 임원 공백 파행을 겪었던 상황을 방지하고자 요구한 것이다.

사 : 각 사에서도 나름대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지부교섭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무시하고 명기하면서 수용할 수는 없다. 각 회사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운영하는 걸로 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되면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이 아니다. 정말 시간할애가 너무 많다.

노 : 시간할애가 많다는데 우리가 활동할 때는 부족하다. 그리고 지부가 공직취임을 요구하고 채우는 각 사별로 논의하자고 했다. 사용자가 충분히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 문구 그대로 수용해도 문제 없다. 인원 수는 무한대로 하기 어렵다고 하니 논

의해볼 수 있다. 노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인정한다면 이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

사 : 무급이든 유급이든 인정하고 임금은 차후 지회별로 논의하지는건가?

노 : 우리 요구안이 그렇다. 지회별 임금까지 보장하는 걸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지부 담당간부 시간할애는 금속노조가 산별노조이고 개별조합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한 개 사업장에서 개별조합원이 가입하고 지부 대의원이 선출됐다. 대의원 활동시간은 보장해야하는 것 아닌가? 여태까지 하던 걸 안해준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개별조합원에 대해서 대의원, 간부 선출될텐데 최소한 시간할애는 보장해야하는 것 아니냐? 지회는 노사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단협 범위 외의 조합원은 받지 않았다. 지부에서 개별조합원으로 받은 것이다. 임금인상도 최소한 동결 아닌 내용으로 1차 제시안은 내면 좋겠다. 오늘 제시안 보면서 교섭위원들이 상당히 실망했다. 이후에 지부 운영위에서 투쟁계획 잡을텐데 8월에 계속 투쟁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 최소한 들어줄 건 들어주고 양해해달라고 해야지 완전히 막아놓으면 안된다. 지부가 요구하는게 크다고 보지 않는다. 노조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것 요구한 것이다. 다음주까지 진전된 안을 만들 수 있나? 시간이 필요하다면 더 드리겠다.

사 : 오늘도 논의 많이 했는데 잘 안됐다. 다음주 교섭 전까지 크게 결단 내리기 전에는 지부장이 요구한 수준의 협의안을 못만들 것 같다. 시간을 좀 더 달라. 휴가 후 교섭에서 진전된 안 내겠다.

노 : 결단하게 만들어드리겠다. 우리도 교섭 계속 길게할 생각없다. 빨리 결단하셨으면 좋겠다. 휴가 이후 진전된 안으로 교섭하자.